

<2014년 서울시 9급 국어(A형)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⑤	③	①	⑤	②	⑤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③	②	④	②	①	④	①	①	③

1.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下]

[풀이] ‘종심(從心)’은 공자가 70세가 되어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테서 나온 말로, 70세를 일컫는다.

[오답]

① 이순(耳順) : 60세. ③ 지천명(知天命) : 50세.

④ 불혹(不惑) : 40세. ⑤ 이립(而立) : 30세.

2. [정답] ③ [어법. 난이도 下]

[풀이] ‘모름지기’는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라는 부사이며, ‘~해야 한다’는 당위적 서술어와 함께 온다. 따라서 ③번은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3.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中]

[풀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이다.

4. [정답] ⑤ [문법. 난이도 中]

[풀이] ‘아름답게’는 형용사이다. 기본형 ‘아름답다’의 활용이 ‘아름답게, 아름답고, 아름다워’ 등이므로 품사는 형용사가 된다. 참고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며, 활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5.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中]

[풀이] ③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며, 나머지는 모두 ‘안은문장’이다. ‘봄이 되니까 ~했다’는 앞 절이 뒤의 절을 수식하는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① : 관형절을 안은문장. ② : 명사절을 안은문장.

④ : 명사절을 안은문장. ⑤ : 인용절을 안은문장.

6. [정답] ① [외래어 표기법. 난이도 下]

[풀이]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가 맞고, ‘꼥트, 떠블, 께임, 뻬에로’는 틀리다.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7. [정답] ⑤ [어법. 난이도 中]

[풀이] ⑤번은 ‘어휘적 중의성’이다. ‘배’가 ‘사람의 배’인지,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동음이의어의 모호성이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다. 한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수식 구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므로 수식의 모호성에 해당한다.

8. [정답] ②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의인법을 묻는 문제이다. ‘양은그릇에 먹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는 사물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오답]

① : 대유법. ③ : 점층법. ④ : 도치법. ⑤ : 은유법.

9. [정답] ⑤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인간의 두뇌 활용도’와 관련된 글이다. 재능을 사장시키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⑤번은 ‘개성적인 인간, 조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④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방끗’은 ‘방긋’의 센말로,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의미한다.

[오답]

① → 입학률(O). ② → 어린이난(O).

③ → 체하였다(O). ⑤ → 찻질제(O).

11. [정답] ⑤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보기>에서는 ⑤번의 예를 찾을 수 없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등에 해당한다.

12. [정답] ③ [띄어쓰기. 난이도 中]

[풀이] 시간 앞뒤의 ‘지’와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돌아오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 ① → 한√벌(O).
- ② → 것대로(O).
- ④ → 10미터(O).
- ⑤ → 뭇√듯이(O).

13.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上]

[풀이] ‘윤뚝뚝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이다. 참고로, ‘사물에 어두워 아는 것이 없고 뚝뚝하지 못한 사람’은 ‘바사기’이다.

14. [정답] ④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닝쿨, 덩쿨’은 복수 표준어이나, ‘덩쿨’은 비표준어이다.

15. [정답] ② [한자. 난이도 上]

[풀이] 과거 서울시 7급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다. ‘부정’은 동음이의어가 다섯 가지이다. ‘부정(不正)’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며 ‘부정 입학’ 등에 쓰이며, ‘부정(不定)’은 ‘일정하지 아니함’을 뜻하며 ‘주거 부정’ 등에 쓰인다. 또, ‘부정(否定)’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을 뜻하며 ‘부정적, 긍정적’ 등에 쓰인다. 그리고 ‘부정(不淨)’은 ‘깨끗하지 못함’을 뜻하며 ‘부정 타다’의 형태로 쓰인다. 마지막으로, ‘부정(不貞)’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을 뜻하며 ‘아내가 옆집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다.’의 형태로 쓰인다.

16. [정답] ① [한자성어. 난이도 上]

[풀이] ‘상마지교(桑麻之交)’는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친한 사이’로 해석되는 데 비해 ‘상마지교’는 ‘전원에 은거하여 사귀기’이므로 차이가 있다.

[오답]

-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 ③ 교칠지교(膠漆之交) :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

- ④ 금란지교(金蘭之交) :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 ⑤ 수어지교(水魚之交) :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창작군담소설의 배경은 주로 중국이나 공간 미상이다. 예를 들어, <유충렬전>과 <조웅전>의 배경은 중국이다.

18.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上]

[풀이] ‘동반자작가’는 1930년대 사회주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조한 작가들을 이르는 말이며, ‘유진 오, 이효석’ 등을 동반자작가라고 한다. 참고로, ‘김동리, 김유정’은 순수 문학의 대표적 소설가들이다.

[오답]

- ④ : 청록파는 1940년 전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의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中]

[풀이] 박목월의 <청노루>는 원경(遠景)에서 근경(近景)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머언 산 청운사’로 시작해서 ‘청노루 맑은 눈’으로 시선을 좁히고 있다.

20. [정답] ③ [한자. 난이도 上]

[풀이] ‘편력(遍歷)’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함’을 의미하며, ‘직업 편력, 여성 편력’ 등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편(遍)’은 ‘두루 편’이므로 적절하다. 참고로, 시험에는 ‘치우칠 편(偏)’도 잘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편견(偏見), 편향(偏向), 편중(偏重)’ 등에 쓰이는 한자와는 다르다.

[오답]

- ① 가상(假想) :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 (거짓 가, 생각 상)
- ② 가시(可視) :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옳을 가, 볼 시)
- ④ 과장(誇張) :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자랑할 과, 배풀 장)
- ⑤ 통찰(洞察) :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밝을 통, 살필 찰)

<2014년 서울시 9급 국어(A형)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유형	문항수	비율
1	어문 규정	5	25%
2	문학	4	20%
3	비문학	1	5%
4	어휘	3	15%
5	한자	2	10%
6	문법	2	10%
7	어법	2	10%
8	한자 성어	1	5%

2. 2014년 서울시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보다 어려웠습니다.

- 2014년 서울시 시험에서는 어문 규정, 문학, 어휘, 한자, 문법, 어법, 한자성어, 비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루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문제는 전년도와 같이 4문항이 출제되었고, 역시 지엽적인 문학사와 문학 이론을 묻는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9급 시험은 전통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 어려운 편입니다. 문학의 비중이 다소 높고 한자의 독음과 표기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은 2013년과 비슷한 난도를 보이며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한 문제들이 일부 보입니다.

3. 표면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정, 오답이 확실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 ‘시험’은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은 ‘많은 것을 아느냐’보다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다양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정오답을 빨리 찾아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능력과 기술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서울시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어렵나 한자, 어문 규정 등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대입시키고, 소거법(消去法)을 통해 오답을 제거해 나간다면 확실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 시험은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해 문제 풀이 때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4. 고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 A형 기준으로 13번, 15번, 16번, 18번, 20번 문제 등 한자, 어휘, 문학사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문

법 문제 역시 개인차에 의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한자 관련 문제는 9급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심지어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9급 시험은 7급 시험과 연계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 난도 또한 과거 7급 기출 문제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니 주요 한자어와 한자성어를 400개 정도 정리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 가야 합니다. 기출 한자와 생활 한자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5. 2015년 예상 경향

내년도 올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 문제가 공개된 후 2년 연속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학은 4문제 정도 예상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영역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비문학 문제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매해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고 있으나 대체로 4문제 전후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나오지 않았던 영역들을 주목하여 내년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법 영역의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될 것이며, 로마자 표기법, 표준발음, 비문학(주제, 일치, 순서 등), 고전시가, 합성어와 파생어, 고전 문법, 문법적 표현 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6.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잊어버려라!”

- 시험 후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동안 눈물과 땀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리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시험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 역설적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하고, 빨리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문제에 다소 불만이 있을지라도 신은 노력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시험의 아쉬움을 내년 시험의 합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꿈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부모님, 친구, 형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cafe. daum. net/jwskorean)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면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